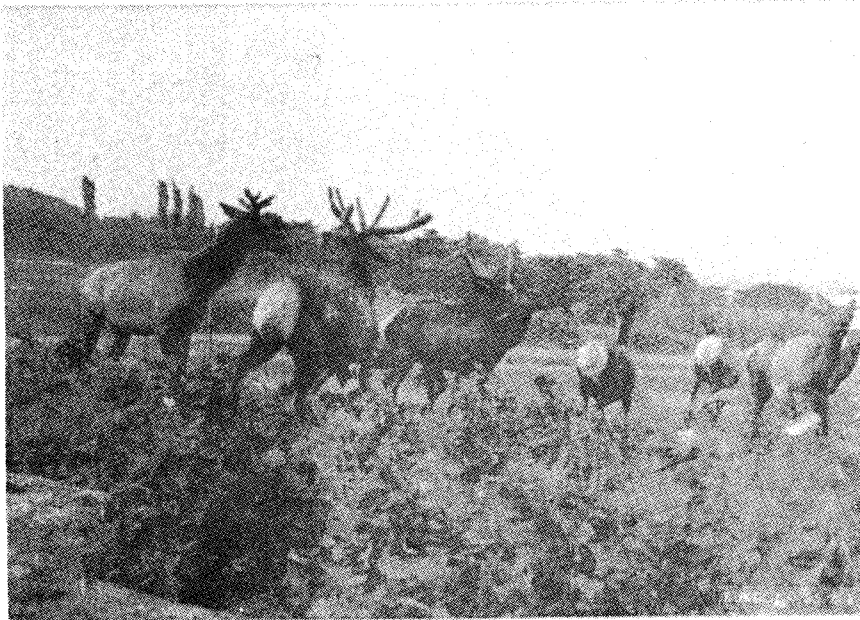


절각시설 개선으로 사슴을 보호 하자

本會理



나는 어릴 때 부터 한적한 시골둔턱에다 조그만 집을 짓고 양이나 치며 소떼를 모는 그림같은 목장을 경영하는 것이 희망이었는데 그러한 생각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깊어져 말을 타고 대지를 치달는 서부영화를 보면서는 한결 굳어졌다. 그러나 세상사란 그리 뜻대

로 되는것이 아니라 결국 영화처럼 그런 목장은 경영하지 못하고 고작 사슴 몇마리를 사육하는 초라한 목장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십수년 전 처음으로 사슴 2마리로 시작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1천마리 정도에 불과하였으니 사슴의 가치는 귀하고 부유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동물로 부각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시골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주위의 사람들은 노루를 키운다고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얼 빠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다.

이런 눈총속에 이듬 해 6月 24日 새끼 한마리를 순산하였다. 그런데 새끼를 낳은 어미사슴이 두달후에 죽어버렸다. 귀여운 새끼의 재통을 보는 것도 잠시 뿐이고 어미의 죽음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니까 먹이와 물만 주면 잘 자라리라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다. 어떤 뜻으로는 무지와 무능의 소치였다. 고창중에 걸려 까스가 차 배가 무섭게 부푸러 걸음도 걸지 못하고 신음만 하고 있는데 어찌할바를 몰라 망설이던 중 죽어간것이다. 닭 쫓던 개 하늘 쳐다보기로 명

뿐이었다.

이런 실수는 범하지 않겠다고 대구 근교의 목장을 찾아다 함께 연구하였으며 또한 사슴이란 글자가 들어있는 책이라면 구입하여 읽었다.

수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역시 무리였다. 결국 78, 79년에도 한마리등 나의 애닭은 마음과는 상관없는듯 죽어 대한 전문 수의사가 없는 지역이라 진료가 무척 힘이 들었고 고가동물이라 치료하기를 꺼려 왕진마저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일은 지금도 생각하면 아연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새끼 한 마리가 창문 틈새에 옆 볼에 혹이 하나 생겼다. 걱정스럽게 소염제를 먹이려 했으나 먹지를 앓았으며 그렇다고 주사를 하려 하였으나 당시 독일산 부루건이 구하기가 힘이들어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몇일을 그런데로 기다리는데 하루는 입으로 먹은 건초가 화농한 상처로 흘러 나오는 것을 보고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 이를데 없었다. 즉시 시내 수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였더니 사슴을 묶어둔 후에 오겠다면 훌훌히 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할까. 참으로 난감하였다. 그러던 중 문득 서부의 로데오 경기가 생각났다. 급히 올라미를 만들고 문주 사이에 올라미를 드리워 새끼를 몰아 넣는 방법을 강구했다. 몇차례 실패를 거듭하다가 간신히 걸렸는데 새끼 사슴은 용수철처럼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다. 아마 2 m 정도는 뛰는 것 같은데 우선 잡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순식간에 덮쳐 사슴을 안고 튕굴었다.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다행히 학창시절에 운동을 열심히 한 탓인지 별 탈은 없었지만 지금생각해도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기가 요즘처럼 마취약이 흔하고 기술도 향상되었으니 우직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대단한 모험이었다. 더러는 럼푼으로 마취를 시켰는데 원하는 시간에 마취가 되지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하루는 부산 어느 목장을 찾아 마취방법을 견학한 일이 있었다. 그분은 럼푼을 주사한 후 사슴이 비틀거리면 밧줄로 사슴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한 후에 절각한다고 설명 해 주었다. 그러나 다음에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럼푼을 사용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었다.

그리하여 석시니코린을 사용하였는데 이것 역시 결점이 있었다. 적당한 량을 사용하여 기술적으로 잘 사용하면 무척 효과적이거나 자칫 잘못하면 갑자기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달리다 쓰러지면서 빨과 사슴을 다치는 경우도 있고 마취약의 량이 과다하면 심장마비 호흡중단등 위험이 수반되어 좀더 안전한 방법을 추구하게 되었다.

럼푼으로 반 마취시키고 절각장(합정식)에 몰아 넣으면 될것같아 수수깡으로 모형을 만들어 여러차례 수정을 하여 실물을 만들어 실험을 하였더니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얻어 참고 삼아 그림을 실는다.

꽃사슴의 합정식 절각장을 크게한 것인데 엘크는 중량이 무거우므로 중력을 견

딜 수 있는 감속기야 5 마력과 도르레를 이용하면 되고 설치비용은 100 만원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상 절각장이 완성되어 절각하려면 예정시간 30 분 전에 럼푼 5~6 cc를 주사하여 사슴 머리가 앞 무릎까지 숙어지면 서서히 절각장에 몰아넣고 옆문으로 사람이 들어가 사슴을 정위치에 서게한 후 감속기어를 풀어 함정에 빠뜨린 다음 절각을 마치고 문을 닫고 감속기어를 감아 사슴을 올려 내보낸다.

이 방법은 럼푼의 완전마취나 석씨코린 사용보다 안전하고 사슴에게 충격이 적어 사육농가에 권장하고 싶다.

이렇듯 몇가지 경험담을 적어보나 그외에도 즐거웠던 일 괴로웠던 일이 많지만 지면관계상 다 적지 못한다.

다만 세상사에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한국 사슴업계에 발을 옮긴 한 사람으로 그 초기의 눈물겨운 일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으로 생각되어 훗날 체계있는 기록을 남기고저 한다.

(익양사슴목장대표)

절각장내의 약도

